

## 해방 직후 향교재산관리와 지방 국립종합대학교의 설립\*

-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

장순순\*\*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향교재산을 기반으로 한 유교대학 설립 운동이 호남지역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미군정기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과 지방 국립대학교 설립과의 연계를 고찰하였다.

1948년 5월 17일 해당 법령 공포로 향교재산은 각 도의 향교재단에 귀속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국가의 통제하에 놓였다. 같은 해 6월 전라북도향교재단이 설립되었으며, 8월에는 향교재산을 활용하여 명륜대학이 세워졌다. 1950년 4월 문교부의 인가로 초급 명륜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儒學 강의도 포함되었다.

1946년부터 정부는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도에 국립종합대학교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지역 내 단과대학을 통합하고 재원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교재산을 국립대학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며, 성균관 및 유도회 총본부도 이에 협력하여 각 지역 향교재단이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북향교재단은 명륜대학을 국립전북종합대학에 편입시키고, 보유 향교재산의 50%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1951년 10월 국립전북종합대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향교재산이 지방 국립대학교 설립 및 국가 교육체계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 주제어

향교재산, 국립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라북도향교재단, 유교대학, 성균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HK연구교수

## C ontents

1. 머리말
2. 미군정기 향교재단관리법령의 제정과 향교재단의 설립
  - 2.1. 미군정기 향교재산관리법령의 제정
  - 2.2. 전라북도향교재단의 설립
3. 향교재단과 유교대학의 설립
4. 국립 전북종합대학교의 설립과 지역 유림의 입장
  - 4.1. 전북대학교의 설립과 향교재산
  - 4.2. 전북대학교의 설립에 대한 지역 유림의 입장
5. 맺음말

### 1.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과 함께 한반도는 해방되어 국권을 회복했다. 해방 후 우리에게 놓인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는 일제의 압박과 착취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국의 건설과 민족문화 창달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는 대학설립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대학을 신설하거나 기존 교육기관들의 승격 등으로 현대적인 편제를 갖춘 대학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는 멀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호남지역에서도 대학설립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1947년 10월 이리에서는 도립 이리농과대학이 설립되었고, 군산에서는 1948년 8월 미인가 4년제 초급대학인 群山大學館이 설립되었다. 전주에서는 1947년 7월에 전주이씨 문중이 주도한 乾山大學의 설립 움직임도 있었다. 또한, 1948년 5월 17일 향교재산관리법령이 공포된 후 明倫大學(院)이 초급대학으로 1948년 8월 1일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전주 명륜대학은 향교재산으로 세워졌다. 1948년 5월 17일 공포된 「향교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향교재산을 통합하고, 전북지역의 향교와 유림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이 설립한 유교대학이다. 이 시기 만들어진 유교대학으로는 ‘재단법인 전라남도향교재단’이 세운 大成大學이 있다. 이 대학들은 이후 각각 국립 전북종합대학교의 문리과 및 법정대학과 국립 전남종합대학교 문리과대학의 모체가 되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의 설립으로 이어져 국립대학교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호남지역 대학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교육학 개론서 등 일부 저서에서 근현대 한국 교육사를 논하는 과정에서 간략히 언급되는 수준이다. 특히 국립대학교의 설립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에 한정되어 있거나 ‘國大案 파동’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정도이고<sup>1)</sup>, 지방 국립대학교의 경우, 각 대학교가 기념사업으로 출판하는 ‘學校史’의 기술 속에서 그 연혁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향교재산을 기반으로 한 유교대학의 설립 운동이 타지역과 구별되는 호남지역만의 특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미군정기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 과정, 전라북도에서 향교재산을 재원으로 한 지방 유교대학의 설립과정, 유교대학이 국립종합대학교 설립의 모체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지역유립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지방 국립대학교의 초기 역사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해방 후 한국의 고등교육체계의 수립과정과 국립대학교 설립과정을 밝히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sup>2)</sup>

1) 국립대학교 설립에 주목한 연구로는 강명수, 「국립서울대학교설립 과정에 대한 재론(再論)」, 『한국교육사학』 26(1), 2004; 강명수, 「미군정기 고등교육 개혁의 특징과 성격」, 『교육비평』 13, 2003 가을; 이상호, 「6·25전쟁 직후 전신군인연합대학의 창설과 운영」, 『군사』 124, 2022; 김태미, 「미군정기 한국고등교육 개혁에 관한 고찰: 국립서울대학교설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정환규, 「미군정기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등이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1948, 1951, 鄉校財團法人業務推進概要綴(鄉校財團設立·明倫大學設立·全北大學設立)』을 주 자료로 활용한다. 총 300여 쪽의 분량으로, 『鄉校財團設立 및 추진업무』, 『明倫大學設立關係綴』, 『全北大學設立關係綴』 등 문서철로 정리되어 있다. 내용은 각각의 관련 공문서 및 향교재단 이사회 및 평의회 회의록, 향교재단이 국립전북대학교 후원재단에 제공한 재산 관련 기부증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 자료는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홍성덕 교수가 제공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한편, 자료 활용 중에 발생한 오류는 모든 책임이 필자에게 있음을 밝혀 둔다.

## 2. 미군정기 향교재산관리법령의 제정과 향교재단의 설립

### 2.1. 미군정기 향교재산관리법령의 제정

1945년 11월 20일부터 유림세력의 통합과 조직화를 위해서 전국유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청년 유림측인 大同會의 주동으로 통합운동이 무르익으면서<sup>3)</sup>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유림들이 성균관의 명륜당에 운집하여 6일 동안 열렸는데, 이는 유교 조직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대동회 소속 김성규가 사회를 맡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임시로 ‘유도회중앙총본부’의 임원들을 선임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문에는 이승만·김구, 중앙집행위원장에는 金昌淑이 선임되었다. 유도대회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민족 고유문화의 근간인 유교 도의의 혁신과 향상 도모, 둘째 국제교섭의 결의에 관한 사항이었다. 유교 도의의 혁신 향상을 도모하는 세부 방안으로 “일본제국주의 교육의 폐질을 말근하고 신교육책을 수립함”, “성균관대학 설립 재단의 완성을 期함” 등 친일교육 청산을 통한 유교혁신과 성균관대학의 설립 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국제교섭의 결의에서는 유교계는 “군정에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sup>4)</sup>

1946년 2월 20일, 성균관에서는 오랫동안 분립되어 온 유도회의 간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3월 13일 전국유림대표자대회를 열어 유도회의 조직을 개정하기로 했다. 마침내 3월 13일 전국 유림 2,500여 명이 모여 성균관 명륜당에서 열린 유도회 창립총회에서 유도회 총본부가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김창숙을 선출했다.<sup>5)</sup> 이로써 해방 직후 유교 단체 난립으로 인한 유교계의 분열 양상은 일단 봉합되었으며, 유교계는 해방 정국의 와중에서도 유교 복원과 부흥을 향한 유교 근대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5월, 유도회 총본부는 성균관에서 총회를 소집하고 유교 부흥의 각종 사업 진행에 관한 안건을 토론했다. 유교 복원과 부흥 과제는 유교 재생산 기반을 위한 세 가지 목표, 즉 성균관의 復設, 유교대학의 설립, 향교재산 관리의 합리화 등으로 구체화 된다. 이 과정에서 김창숙과 유도회의 근대화 노력은 유교계의 다양한 세력들과 갈등 관계에 놓이기도 했다.<sup>6)</sup>

3) 김인규, 『해방후 유림의 분열과 사단법인 유도회』, 『동양문화연구』 28, 76쪽.

4) 《民衆日報》, 「成均館大學設立決議, 全國儒林大會서」, 1945. 12. 11.

5) 成均館儒道會, 『成均館儒道會七十年史』 上, 2018, 140쪽.

6)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編, 『(國譯)心山遺稿』, 권5, 「雜記」, 國譯心山遺稿刊行委員會, 1979, 818-819쪽; 이황직, 『군자들의 행진』, 아카넷, 2017, 315쪽.

한편, 유도회 총본부는 성균관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과정에서 전국에 산재한 향교 재산의 관리에 관심을 가졌다. 이 문제는 유교 재생산의 물질적 기반 확립과 관련된 과제였기 때문에 중앙의 유도회와 각 지역 향교 세력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향교재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향교 재산을 총독부에 귀속시키고, 명륜학원의 운영 경비 가운데 일부를 각 향교 재산에서 각출하여 조달했는데.<sup>7)</sup> 이 규정이 해방 후에도 지속되어 학교설립에 어려움을 겪자 김창숙은 “향교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급하여 늦출 수가 없”는 사안임을 밝히며, 유교계 인사들에게 찾아내는 방법을 각별히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1946년 6월경 김창숙은 당시 미군정 문교부장을 맡고 있던 兪億兼, 차장 吳天錫, 과장 尹世九 등을 불러 이 문제를 상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구도 배석했는데, 김창숙은 문교 당국에 일제강점기 때 운영되던 모든 악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향교재산을 군정청에서 각 향교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향교재산관리규칙」을 철폐하여 官의 감독하에 운영되는 향교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지역 유림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유교계의 부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장했다. 김구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했다.<sup>8)</sup>

그러나 유억겸<sup>9)</sup>은 향교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둘러싼 유교계의 요구에 대해 일제가 향교재산관리규정을 설치한 데에는 기존 유림들의 悖流에도 원인이 있고, 일제에 협력했던 直員이나 掌議 등이 “여전히 향교 주인으로 자처하고 재산 처리의 권리를 잡으려고 농간질하는” 상황에서 “결코 막중한 향교재산을” 유림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sup>10)</sup> 대신,

7) 이황직, 위의 책, 2017, 324쪽.

8) 『(國譯)心山遺稿』, 권5, 「雜記」, 818-824쪽.

9) 유억겸은 1945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미군정기 남한의 교육이념과 제도, 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제도의 전반에 대해 논의했던 조선교육심의회 제2분과위원회(교육제도)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조선교육심의회는 10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고, 각 분과위원회에 7명 내지 10명의 위원을 두었다. 각 분과위원회는 미군정 학무국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의제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최종 결의를 했다(김상훈, 「미군정기 교육정책 수립과 한국인의 역할」, 『역사연구』 28, 2015, 144-147쪽).

10) 『(國譯)心山遺稿』, 권5, 「雜記」, 822쪽.

저 日政 악법은 단연코 빨리 폐지를 서두르겠다. 그러나 각 향교에 돌려주는 일은 결단코 명을 받들지 못하겠다. 지금 선생은 유도회 총본부 위원장으로서 전체 유림을 영도할 지위에 계시니, 대개 전국 향교재산을 통합하여서 하나로 합치고 하나의 큰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유교 문화를 크게 일으키는 기본방침을 생각하라. 성균관은 유교의 최고기관이니 최고기관에서 그 재단법인을 감독하면서 교육문화 등 각 방면의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그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 지금 38선 이북은 어느 때 서로 통할지 모르니 잠시 이남 9도에다 각각 재단법인을 설치하고 성균관에서 통할하여 감독하면서 이것으로써 유교 문화의 각종 사업을 진흥시켜 나간다면 어떠하겠는가.<sup>11)</sup>

라고 제안했다. 유억겸의 주장은 일제강점기부터 존속해 왔던 향교재산관리규정은 폐지하지만 향교재산을 각 향교에 돌려줄 수는 없다. 대신에 ‘큰 고기 덩어리’인 전국의 향교재산을 하나로 합쳐서 통합해 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각도별로 향교재산관리법인을 만들게 해서 성균관에서 통합 관리하라는 것이었다. 즉, 개별 향교의 독단적인 재산 운용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각 지방 유림들은 ‘유림의 피로 遺傳된’<sup>12)</sup> 향교재산을 지역 유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됨으로써, 지역의 명예를 걸고 유림들끼리 경쟁하게 될 때 유교계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sup>13)</sup>

그러나 유도회 총본부 위원장 김창숙이 유억겸의 안을 수용하면서, 문교부는 1947년 5월 8일부로 향교재산관리권을 군청에서 성균관으로 이관하기로 단독 결정했다. 미군정의 문교부장 유억겸과 관리들은 유교계를 존중하고 유교문화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이러한 결정의 본질적인 이유는 막대한 향교재산을 국가의 관리·감독하에 두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향교재산은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계속 각 시장과 군수가 관리하라는 요지의 문교부장의 통첩이 있었다.<sup>14)</sup>

유도회 총본부가 지방 유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장에 동의

11) 위의 책, 823-824쪽.

12) 《동아일보》, 「儒道會總會」, 1947. 10. 1.

13) 《自由新聞》, 「各地鄕校財産 移管說에 物議擡頭」, 1947. 8. 12, 《동아일보》, 「儒道會總會」, 1947. 10. 1; 《工業新聞》 「鄕校財産管理廢止」, 1947. 11. 28; 《江原日報》 「鄕校財産管理廢止」, 1947. 11. 29.

14) 《조선일보》, 「문교부장 통첩으로 향교재산은 계속 각 시장·군수가 관리」, 1947. 8. 27.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성균관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마련 문제가 있었다.<sup>15)</sup> 1945년 11월 20일 전국유림대회에서 성균관대학의 설립이 결의된 후, 김창숙이 주도한 유도회총본부는 유교계 대학설립에 필요한 재단 구성에 역량을 집중했다. 당시 성균관대학의 모체로 1945년 10월 신입생을 모집해 개교한 명륜전문학교의 재정 상태는 무척 곤란한 상황이었다.<sup>16)</sup> 유도회는 먼저 성균관대학 기성회를 결성하여 독지가인 李錫九로부터 재단법인 학림사의 재산(토지)을 회사받았다. 재단법인 선린회와 명륜전문학교 재단을 통합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구성하였으며, 1946년 9월 25일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정식으로 인가받았다.<sup>17)</sup>

이러한 상황에서 유도회는 성균관대학의 운영비용을 일제강점기 명륜학원(명륜전문학원, 명륜전문학교 포함)이 향교재산으로 운영되었던 방식<sup>18)</sup>을 답습하여 재정을 조달하고자 했기 때문에, 관(총독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던 일제의 유교정책의 연장선이었던 문교부의 유교 규제책을 그대로 수용해 버리는 모순을 택한 것이다.

한편, 향교재산의 관리를 둘러싼 의견의 대립은 유도회 총본부와 지방 유림 사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향교재산을 관리해 왔던 내무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의구심을 표현하는 등<sup>19)</sup> 반대 입장을 표했다. 문교부와 내무부 간 갈등으로 향교재산의 관리 규정의 처리가 지지부진해지자 유도회 총본부는 성균관에서 1947년 11월 20일부터 사흘간 각 향교 대표자 및 유도회 道本府 대표자대회를 열어 향교재산회수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군정청에 문교부 안의 즉시

15) 이황직, 앞의 책, 328-327쪽.

16) 위의 책, 320쪽.

17)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유도회(<https://www.skcca.org>), 기관 소개.

18) 명륜학원은 총독부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성립되었다. 총독부는 1920년대 증가한 지방의 양반·유림 집단의 조직 활동을 의식하여 경제 혼란과 항일 운동 등의 사회 불안울 억제하기 위해 1930년 경학원에 부속시설로 명륜학원을 설치했다. 명륜학원의 운영비용은 경학원의 회계 이외에 지방 향교에서의 각출료가 이용되었다. 지방 향교의 각출은 단기간의 보조가 아니었으며, 매년 각 향교에서 지출되는 경상비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1939년에는 명륜전문학원으로, 1942년에는 명륜전문학교로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향교재산의 기부금이 조달되었다. 특히 재단법인 명륜전문학교는 향교재산의 기부금 및 일반 기부금만으로 운영되었다(류미나, 「식민지기 조선의 명륜학원-조선 총독부의 유교지식인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교육사학회』 17(1), 2007, 64-69쪽).

19) 《自由新聞》, 「各地鄕校財産 移管說에 物議擡頭」, 1947. 8. 12.

처리를 요구했다. 이때에도 각도 사회교육 담당 관리들은 향교 재산을 특정 재단, 즉, 유교계 재단이 관리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강경하게 반대했다. 관리들에게 향교재산은 언제든지 관청의 필요에 따라 빼내 쓸 수 있는 특별자산처럼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향교재산의 성균관 이관을 둘러싸고 관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문교부는 민정장관 安在鴻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민정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향교재산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sup>20)</sup> 그 결과, 1948년 5월 17일 南朝鮮過渡政府 법령 제194호로 「향교재산관리를 위한 법령(鄉校財産管理에 關한 件)」이 공포되었다. 법령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鄉校財産管理에 關한 件

首題의 件에 關하여 입법적 심의와 법률제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에 의함.

제1조 本令은 향교재산의 유효적절한 운용을 期함으로써 目的함.

제2조 本령에 있어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動産, 不動産, 기타 일체의 재산을 지칭함.

제3조 향교재산은 本령에 의하지 않고는 買賣, 讓與, 交換, 擔保, 기타 처분에 관한 일체 행위를 하지 못함.

제4조 향교재산은 道別로 財團法人을 설치함.

향교재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및 享祀用 器具는 基本재산으로 함. 현금 기타 동산은 當該財團의 流動財産으로 함.

제5조 향교재단은 道內 소재의 각 문묘를 유지하여 교육, 기타 教化사업을 경영하여 유도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企圖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제6조 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다음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1.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教化사업의 경영

제7조 향교재단은 매년도 재산수입에서 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대학에 각각 그 유지를 위하여 해당 유지재단에 납부함을 요함.

20) 《자유신문》, 「鄉校財産對策委員會를 조직」, 1947년 12월 1일; 《世界日報》, 「道單位로 財團 鄉校財團管理決定」, 1948. 2. 25.

- 제8조 향교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을 위하여 前條에 규정한 금액 및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경비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充用하여야 함.
- 제9조 종래의 향교재산관리자는 본령 시행일 현재의 향교재산목록과 현금 및 現品을 본령 시행 후 20일 이내에 소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10조 도지사는 종래의 향교재산관리자로부터 향교재산목록과 현금 및 現品을 수령하고 그 상세 사항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함을 요함.
- 제11조 도지사는 본령 시행 후 40일 이내에 본령 및 現행법령에 의거하여 향교재단의 설립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제12조 향교재단설립에 관해서는 이사의 수를 7인 내지 15인으로 하되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로 하여금 선정케 함. 단 이사 1인은 도지사의 추천하는 道公務員으로 함.
- 제13조 본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는 적법한 것에 限하여 본령에 의한 향교재단에서 이를 승계함.
- 제14조 향교재산관리규칙(1919년 6월 29일附 總令 제91호) 지방문묘규정(1945년 5월 14일附 總令 제110호)은 본령 시행 후 20일 후 그 효력을 상실함.
- 제15조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유효함.  
단기 4281년(1948) 5월 17일

위 건을 건의함 民政長官 安在鴻

위 건을 승인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 少將<sup>21)</sup>

전문 15개 조로 이루어진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에는 향교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향교재단의 설치, 목적, 그리고 이사의 구성, 향교재산에서 얻은 수입의 활용 등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향교재산은 향교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부동산·기타 모든 재산을 지칭하는데, 각 향교는 임으로 매매·양도·교환·담보·기타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각도별로 재단법인, 즉 향교재단을 설치해야 하며, 그 목적은 도내에 소재한 각 문묘(향교)를 유지하여 교육, 기타 교화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유도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또한,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얻은 수입도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유지, 도내 각 문묘 유지, 교육 및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종래의 향교

21) 「南朝鮮過渡政府 법령 제194호」, 『鄉校財團法人設立關係綴』. 본고에서 인용한 사료는 20세기 중반의 문체로 쓰였기에, 본 글에서는 문체와 띄어쓰기 등을 현대 문법에 맞게 고쳤다. 이하의 인용문 모두 이와 같다.

관리자는 법령시행일 현재 각 향교가 소유한 재산목록, 현금 및 현품을 법령 시행 후 20일 이내에 소관 도지사에게 내야 했다. 그리고 향교재단의 이사는 7~15명으로 구성하고, 각 향교의 유림 대표가 이사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1명의 이사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도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향교재산관리규칙」과 「지방문묘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sup>22)</sup>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은 유익겸과 관료들이 김창숙에게 제시한 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지역 유림은 향교에 대한 자치운영 권한을 잃게 되어 중앙의 성균관과 각 도 향교재단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sup>23)</sup> 외형적으로는 향교재산의 관리 주체가 관의 통제를 벗어나 향교재단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향교재산은 기존의 내무부 소관에서 문교부 소관으로 감독관청의 교체만 있었을 뿐, 유교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방 향교재산이 성균관대학에 투입되게 되었다는 것 외에도, 유도회 총본부와 성균관에 향교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결국 성균관대학 설립·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졸속 진행된 유도회의 ‘향교재산관리의 합리화’ 시도는 결국 문교 당국의 관리 편의를 위해 일제하의 유교 정책을 존속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지역 유림들의 자율적인 유교 부흥시도는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sup>24)</sup>

## 2.2. 전라북도향교재단의 설립

1948년 5월 17일 향교재산관리법령이 공포되자 재단법인 성균관장 김창숙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향교재산관리규정의 폐지를 선언하고, 유림들은 새로운 법령에 따라 각 향교 단위로 신속하게 유림대회를 소집하여 유도회 지부를 결성할 것과, 동시에 향교재산을 충실히 관리할 인사를 향교의 典校로 추천하여 도 재단법인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 집행에 관한 사실을 수시로 성균관

22) 본 법령의 공포에 대해서는 《경향신문》, 「향교재산관리를 위한 법령 제149호 공포」, 1948. 5. 20; 《조선일보》, 「敎化事業外 使用禁止 鄕校財産에 關한 法令을 公布」, 1948. 5. 20; 《大東新聞》, 「鄕校財産의 所得 文廟維持費等에 充當 理事는 儒林代表가 選出」, 1948.05.20; 《동아일보》 「鄕校財産管理法令 第一百九十四號를 公布」, 1948. 5. 21.

23) 지역 유림들은 이 방안이 외부로 흘러나오던 1947년 봄부터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24) 이황직, 앞의 책, 329-331쪽.

에 연락해 보고하도록 했다.<sup>25)</sup>

지역 유림들은 반발했다. 개성에서는 당시 수천 명의 개성부민들이 군정 최고 당국과 문교부에 연서하여 진정을 냈으며,<sup>26)</sup>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유림들이 향교재단 설립과정에서 6월 20일 도청에서 열린 향교재단을 구성하는 회의 참석자 41명 가운데 향교에서 추천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 회의에 참여하여 이사와 감사까지 선임한 사실을 항의하는 항의문을 도지사 張仁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sup>27)</sup>

전라북도에서는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지 24일 만인 6월 10일 도내 향교대표자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도내 향교재단법인의 설립이 결의되고, 같은 달 24일에 미군정청 문교부에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7월 5일, 문교부장관 吳天錫 명의로 향교재단 설립 허가가 이루어져 도재단법인이 성립했다.<sup>28)</sup> 당시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보고된 전라북도향교재단의 총자산은 9,399만 4,664원이었다.<sup>29)</sup>

도 재단의 정식 명칭은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이하, 전북향교재단으로 약칭)’으로 정해졌고, 사무소는 전주향교 명륜당에 두어졌다. 법인의 설립 목적은 “도내 문묘를 유지하며, 교육 및 교회사업을 경영하여 유도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북향교재단은 ① 문묘의 유지, ② 교육기관의 경영 및 補助, ③ 사회교회사업의 시설 및 경영, ④ 유도진흥상 필요한 도서의 간행, ⑤ 학비의 보조 및 貸與, ⑥ 강연회, 학술강연회 등의 개설, ⑦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경영을 밝혔다.<sup>30)</sup>

한편, 전남에서는 전북보다는 늦은 6월 27일, 광주향교에서 광주향교 대표 등 전남지역의 유림 대표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향교재단의 결성식이

25) 《現代日報》, 「鄉校財産 管理問題」, 1948. 5. 30.

26) 《自由新聞》, 「鄉校財産令에 開城 관계자들 陳情」, 1948. 6. 23.

27) 《大邱時報》, 「鄉校財團構成에 말성, 過般開催한 會議의 不合理를 指摘, 道知事에 抗議書를 提出」, 1948. 6. 26.

28) 「文敎化 제323호 財團法人 全羅北道鄉校財團 設立許可에 關한 件」, 『향교재산법인 설립 및 추진업무』.

29) 「文敎化 제322호 財團法人 全羅北道鄉校財團 設立許可에 關한 件」, 『향교재산법인 설립 및 추진업무』.

30) 「財團法人 全羅北道鄉校財團寄附行爲」.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향교재단은 “문묘의 유지와 大成大學의 경영”을 법인설립 목적으로 정하고, 전남에서 유도대학의 설립을 천명했다.<sup>31)</sup> 이는 유교계의 숙원인 유도대학이 지방에서 설립을 논의한 첫 사례였다.

### 3. 향교재단과 유도대학의 설립

해방 직후 남한에는 19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었다. 일제의 고등교육 억제정책에 따라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한 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전문학교였다. 전문학교는 법학·의학·공업·광업·상업·사범·수산 등과 같은 각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일제는 조선인의 민립대학 설치운동을 억누르면서 경성대학을 건립하였기에 사립학교는 모두 전문학교일 수밖에 없었다.<sup>32)</sup> 그리고 상당수의 학교가 서울에 집중되었으며, 지방에서는 수원·부산·대구·광주 등 4곳만이 전문학교가 존재하여 지방의 대학설립이 억제된 상태였으며, 충청권과 강원권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전무한 실태였다. 따라서 해방 후 각 지역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고, 특히 농지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다수의 지주 가운데 자신의 토지를 학교의 설립을 위해 기부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sup>33)</sup>

1945년 10월 16일 「군정법령 제6호」로 재단법인 명륜전문학교가 부활하고, 「군정법령 제15호」 제2조에 의해 ‘성균관’ 명칭이 회복되었으며,<sup>34)</sup> 1946년 8월, 재단법인 명륜전문학교는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정식으로 인가받아, 성균관대학으로 복고되어 9월 25일 개교식을 거행했다.<sup>35)</sup> 성균관대학의 설립은 조선시대 이래 사회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유림들에게 유교적

31) 《호남신문》, 「全南鄕校財團結成」, 1948. 7. 4; 김정인, 「일제 강점기 鄕校의 변동 추이-향교 재산 관련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2006; 이상식, 「전남 대 설립에 공헌한 광주 전남향교」, 『향토문화』 35, 2016.

32) 柳東熙, 「美軍政期の 大學 設立過程 研究」, 『嶺東文化』 8, 2001, 204쪽.

33) 위와 같음.

3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5호」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茲에 此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35) 《동아일보》, 「成均館大學 九月에 開學 初代敎長에 金昌淑氏」, 1946. 8. 10; 《조선일보》, 「成均館大學 開校式 舉行」, 1946. 9. 25.

교양인의 양성과 국가 운영에 직결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조선시대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한 열망의 실현을 의미했다.

1946년에는 상당수의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47년까지 많은 대학교가 설립되었다.<sup>36)</sup> 그 결과 미군정기에는 총 35개교(국립 5개교, 공립 5개교, 사립 25개교)의 대학이 설립되었다. 이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22개가 서울에 소재하였고, 나머지는 부산 3곳, 대구 4곳, 진주 1곳으로 영남권(23%)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기타 지역(14%)에는 호남권이 광주 2곳, 이리 1곳, 춘천 1곳, 청주 1곳뿐이었다.<sup>37)</sup>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호남 등 기타 지역에서는 대학설립이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도 지역 인재의 양성을 위한 대학설립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일제강점기 철도 교통의 요지로서 도시로 성장했던 이리에서는 1946년 이리농림학교에서 개편된 이리농림중학교 교장 李義培를 중심으로 농학대학 설립 운동이 본격화되어 9월에는 도립 이리농과대학설립기성회가 조직되고, 1947년 10월 15일 도립 이리농과대학이 설립되었다. 군산에서는 1947년 9월 1일 전문부 3년 과정의 사설 학원인 群山同志塾이 발족되었다가 1948년 8월 해산되고, 미인가 4년제 초급대학인 군산대학관이 설립되었다.<sup>38)</sup> 전주에서는 1947년 7월에 전주이씨 문중이 주도한 乾山大學의 설립 움직임이 있었으며,<sup>39)</sup> 전북향교재단이 주도한 明倫學校院이 1948년 8월 1일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36) 이때 새롭게 설립된 대학으로 조선대학, 춘천농과대학, 한국해양대학, 부산대학, 중앙여자전문학교, 청구상과대학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대학은 중앙여자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에 설립된 것으로 각 지방의 대학설립 운동이 열매를 맺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柳東熙, 「美軍政期の 大學 設立過程 研究」, 『嶺東文化』 8, 2001, 205쪽).

37) 柳東熙, 위의 논문, 209쪽.

38)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전북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 『전북대학교 50년사』 상, 1997, 4-9쪽 참조.

39) 1947년 7월 26일(全州李氏 花樹會 例年 講信日) 전주에서는 전주이씨 문중이 주도하는 사립 乾山大學 설립 움직임이 일어나 1947년 10월 乾山大學期成發起會가 발족했다. 대학은 전주이씨 始祖 先塋 奉安地인 건지산 아래에 설립하기로 하고, 기성회 사무실은 경기전 齋室에 두기로 했다. 대학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3억 5천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중종의 의연금, 회원의 회비, 特志家의 의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명예회장으로 李承晚이 위촉되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산대학은 설립되지 않았다(「乾山大學 創立贊詞」(1947. 10. 25), 「건산대학기성회규약」, 「건산대학임원명부」).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이 공포된 직후인 1948년 6월 전남에서는 대성대학(館)이, 7월 전북에서는 명륜대학의 설립 논의가 있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유교대학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데에는 이 지역이 서울이나 영남지역에 비해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적었던 것에도 이유가 있겠지만,<sup>40)</sup> 해방 후 지역 유림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조직화에 착수한 곳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방 직후 전북의 유림과 전남의 유림은 지역의 향교를 중심으로 각각 明倫會와 大成會를 결성하였고, 이 단체의 간부들이 상경하여 그해 10월 성균관에서 전국 유림대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서울의 유교인들이 해방 직후 조직화에 한 걸음 앞서갔기는 했지만, 활동가 위주였을 뿐 실제 유림과의 관계는 별로 없었던 것에 비해, 지역의 유림들은 전국적인 명망은 없었지만,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내실을 다질 수 있었고,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유도회총본부가 결성될 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sup>41)</sup>

6월 27일 광주향교에서 전남지역의 각 군 유림 대표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향교재단의 결성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향교재단은 대성대학(館)의 설립을 천명했다.<sup>42)</sup> 전북에서도 1948년 7월 5일 문교부로부터 재단법인 전북향교재단의 설립이 인가된 후, 재단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주요 안건이 유교대학의 설립이었다.<sup>43)</sup>

1948년 7월 16일 전주향교 명륜당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儒道를 중심으로 한 東洋學的 정신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전문학교 정도의 學院을 설립하지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들의 논의가 ‘전북의 首府인 전주’에 대학이 없다는 점<sup>44)</sup>에 유감을 표하고, 학원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내 유림이 총궐기하여 ‘완전한 대학의 설립을 목표로 기성회를 조직하는 것으

40) 1947년 10월 17일 문교부에서는 무자격학원의 난립을 문제삼아 정식 인가를 받은 ‘正規大學’ 17교와 대학승격 준비교 3교, 문교부장 인가 特種高等教育機關 6교를 발표하였는데, 전남에서는 광주의과대학 1교만 포함되었고, 전북에서는 1교도 포함되지 않았다(《조선일보》, 「정규대학명(正規大學名) 문교부(文教部)에서 발표(發表)」 1947. 10. 17).

41) 이황직, 위의 책, 2017, 263-265쪽.

42) 《호남신문》, 「全南鄕校財團結成」, 1948. 7. 4.

43) 토지개혁으로 사유지를 국유지로 반환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은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대학설립을 서두르게 하기도 했다. 해방 후 사학의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설립되었다고 한다(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5, 937쪽).

44) 주 40)과 같음.

로 확장되어, 대학설립이 만장일치 가결되었다.<sup>45)</sup>

8월 1일 2년제 학원인 명륜학교원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sup>46)</sup> 명륜학원재단 이사장은 柳直養이 맡았고, 학원장은 당시 전라북도 학무국장 尹宅重이 겸임했다. 이어 3일에는 대학설립기성회를 결성하고, 20일에 ‘명륜대학설립취지서’를 발표했다. 설립 목적은 “조선인의 정신교육의 원천은 儒道”라는 점을 명시하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행복을 위하여 안으로 儒道の 振興을 통해 국민의 도덕을 배양하고, 밖으로는 세계의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교육문제가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이며, 이를 위해 명륜대학의 발기를 위한 기성회를 조직한다“라고 되어 있다.<sup>47)</sup>

11월 29일 개최된 제3차 이사회 및 평의회에서 대학설립이 결의되고,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재단법인 전북향교재단과 도내 각 향교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리고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 및 교화사업을 위한 경비의 사용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에서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80 이하로 기부행위를 변경했다.<sup>48)</sup> 이듬해인 1949년 1월 20일 문교부의 현지 조사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문교부의 인가가 늦어지면서<sup>49)</sup> 7월에는 전북향교재단의 주도로 全道 차원에서 명륜대학의 허가를 촉진하는 연판운동이 전개되었고,<sup>50)</sup> 대통령, 문교부, 국회에 명륜대학 기성회장 명의의 진정서가 작성되어 제출되는 등 명륜대학 인가 촉진 운동이 전개되었다.<sup>51)</sup>

45) 「제2차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 이사회의록」(1948. 7. 16), 「全北 全州明倫大學 認可에 對한 陳情書」(1949. 8), 『明倫大學設立關係綴』

한편, 당시 신문에는 전북향교재단에서는 전북유도회와 협조하여 명륜대학을 설치하기로 하고 동양철학과 역사 2과를 설치하여 9월 1일부터 개강할 예정이며, 대학기금은 전북향교재단의 2억원 외에 전북유도회에서 매년 100만 원씩을 엄출하여 충당하기로 했다고 보도되었다(《남조선민보》, 「全州에 明倫大學設置 全北儒道會의 協助로」, 1948. 7. 24).

46) 명륜학교원에서는 9월 중 明倫大學院으로 개강을 결정하고 國語漢文科와 사회생활과 2과에서 각 50명씩 학생을 모집하기로 했다(《조선일보》, 「明倫大學院 九月에 開講」, 1949. 8. 8).

47) 「명륜대학설립취지서」, 『明倫大學設立關係綴』.

48) 「제3차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재단 이사회의록」(1948. 11. 29), 「제3차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재단 평의원 회의록」(1948. 11. 29), 『明倫大學設立關係綴』.

49) 「全北 全州明倫大學 認可에 對한 陳情書」(1949. 8), 『明倫大學設立關係綴』.

50) 「明倫大學認可促進運動展開의 件」(1949. 7. 26), 「全北 全州明倫大學 認可에 對한 陳情書」(1949. 8), 『明倫大學設立關係綴』.

4월 13일 문교부가 대학설립을 임시 승인함으로써 초급 명륜대학으로 승격되었다. 당시 문교부의 입장은 전북향교재단의 요구는 초급대학으로 손색없지만 아직 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되기 이전이라 정식 인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sup>52)</sup> 학제는 4년이며, 학과와 학생정원은 문과·經商科·法政科 3개과 600명(학년당 문과가 50명, 經商科 50명, 法政科 50명)이었다.<sup>53)</sup> 바로 이어 4월 19일에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는 직장인의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 명륜대학 야간부 설치가 결의되었다.<sup>54)</sup> 명륜대학 신축부지로는 전라북도 전주시 儉岩洞山 22의 2에 위치한 농지 8町 2反 9畝를 전주시로부터 1950년 2월 10일부터 1980년 3월 31일까지 30년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고,<sup>55)</sup> 전주시 다가동에 거주하는 白奎桓이 기부한 전주시 소재 논 1,030평과 밭 210평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강의과목으로 儒學이 1주에 2시간씩 배정되었다.<sup>56)</sup>

## 4. 국립 전북종합대학교의 설립과 지역 유림의 입장

### 4.1. 전북대학교의 설립과 향교재산

1946년 8월 27일 미군정청 학무국은 「국립대학교 설치령」을 발표했다. 이 법령에 따라 각 지역에 국립대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지방 국립대학교는 한국 전쟁 중에 대부분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영남지역에 편중되었는데, 이 지

51) 「全北 全州明倫大學 認可에 對한 陳情書」(1949. 8), 『明倫大學設立關係綴』.

1950년 3월 8일 전북향교재단은 문교부에 명륜대학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때 전북향교재단은 대학 경영에서 예산을 책임지고 마련하겠다는 「경영」각서와 「설립취지서」를 첨부했다. 설립취지서에는 설립 목적, 대학 명칭 및 위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編制, 校舍 등 설비 개요, 학칙, 개교 연월일, 校地 校舍 平面圖, 완성년도까지의 경비 수치 概算書, 유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大學設立認可 申請의 件」(1949. 3. 8)).

52) 《동아일보》, 「初級大學은 七校」, 1950. 4. 14; 《조선일보》, 「四初級大假認可 入學試驗은 十日부터」, 1950. 4. 14.

53) 「明倫大學(初級) 設立 臨時措置에 關한 件」(1950. 4. 13), 『明倫大學設立關係綴』.

54)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 제7차 이사회회의록」(1950. 4. 19), 『明倫大學設立關係綴』.

55) 「文高 제235호 명륜대학 新築基地 使用推薦에 關한 件」(1950. 5. 16), 『明倫大學設立關係綴』.

56) 「회의록」(1952. 4. 15), 『全北大學校設立關係綴』.

역이 일제강점기 이래로 근대화된 도시로서의 인구집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sup>57)</sup> 정부는 이 같은 지역 격차와 국공립과 사립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한도(一道)에 하나의 국립종합대학 설립하는 방침을 세웠다.<sup>58)</sup> 교육시설의 확보와 교육 재원에 대해서는 지역 내 산재한 단과대학을 통합하여 국립종합대학교를 설립하는 방향과 그에 따른 재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해 조달하도록 조치했다.

전라북도에서 국립종합대학 설립이 공식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51년 4월 6일 개최된 제10차 전북향교재단 이사회에서였다. 이때 ‘국립종합대학 설립추진에 대한 건’이 논의되었는데, 참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었다. 더불어 ① 명륜대학을 고급대학으로 승격시켜 인가를 받는 교섭을 추진할 것, ② 명륜대학을 일원으로 하는 전북종합대학 설치운동을 추진하고, 종합대학의 체제를 구비하기 위해 명륜대학에 文理科의 설치를 계획하며, 종합대학의 설치와 동시에 전북향교재단 소속 재산 가운데 명륜대학 관계 부분을 제공할 것도 함께 논의되었다.<sup>59)</sup> 이는 전북향교재단이 ‘문교 당국의 방침에 순응’한 결정이었다.

1951년 5월 17일 전주, 이리, 군산 지방의 유지들과 金嘉全 도지사 간에 종합대학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의 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국립종합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기금확보 문제가 논의되었다. 설립기금은 국채 모집으로 확보하되, 이를 전주의 본부와 이리, 군산 지부에 배당하여 공동 모집하기로 했다.<sup>60)</sup> 6월 8일에는 도내의 유지 73명으로 구성된 국립전북종합대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위원장에 전라북도

57) 柳東熙, 앞의 논문, 207쪽.

58) 우마코시 도오루 저, 한용진 역, 『한국 근대 대학의 성립과 전개: 대학 모델의 전파연구』, 교육과학사, 2001, 193쪽.

59) 「제10차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 이사회회의록」(1951. 4. 6), 『全北大學校設立關係綴』. 한편, 『전북대학교 50년사』에서는 전북종합대학교의 설립 논의가 1951년 4월 19일에 전북전시연합대학의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김가전 전라북도 지사가 종합대학교 설립에 관한 제언을 했으며, 또 전북전시연합대학 개강식 다음 날인 5월 8일에 전북 지방의 유지와 교육계 인사들이 마침 전주에 와 있던 金斗憲 문교부 고등교육국장과 함께 논의했다고 되어 있다(전북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 편, 『전북대학교 50년사』, 1997, 11쪽).

60) 1951년 8월 중순경에는 약 3억 5천만 원이 거뒀졌으며, 9월 초에는 대학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기금의 총액을 확보해 신청단계에 이르렀다(전북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 편, 『전북대학교 50년사』, 1997, 12-13쪽).

지사 김가전, 부위원장에 전북향교재단 이사장 柳直養이 선임되었다.<sup>61)</sup>

9월 6일 이사회에서는 ‘향교재단에서 경영 중인 명륜대학을 전북종합대학교 문리과 및 법정과 대학으로 이관의 건’과 ‘향교재단 기부행위의 변경 「사업목적」 및 국립전북종합대학교에 재정원조의 건’이 토의 사항이었다. 위 사항들은 이미 두 차례의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 있었고, 6월 8일 평의원회에서 “찬동하는 동시(에) 전북종합대학교 추진과 동 종합대학에 대하여 재정원조 등(을) 본 재단으로서 전력을 傾注할 것을 이사회에 일임한” 사안이었다. 이사회에서는 명륜대학을 전북종합대학교 문리과 및 법정과 대학으로 이관하는 것과 재단의 기부행위 제9조 중 ‘명륜대학 경영’을 ‘전북종합대학교 문리과 법정과대학의 후원’으로 변경하여 문교부의 지시에 따라 전북향교재단 소속 재산의 이윤 중 5할(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에 2할, 재단 각 향교에 3할)을 기부하기로 가결되었다.<sup>62)</sup> 마침내 ‘舉道的’인 열망에 따라 1951년 9월 14일 국무회에서 국립대학교 설립안이 가결되고, 문교부는 1951년 10월 6일 지방 3도의 국립종합대학, 즉 전북·전남·경북대학교의 설립을 인가했다.<sup>63)</sup>

한편 국립종합대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유도회 총본부와 성균관장은 11월 5일 전국의 유도회 지부위원장, 도 향교재단 이사장, 향교 전교 및 敎導員 앞으로 문서를 내려보냈다.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이미 설립한 향교재단 경영의 각 대학을 국립종합대학으로 편입하고” 문교부에서 신설될 국립종합대학에 그 유지비로 향교재단에서 재산의 5할을 편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사후에 物議를 따로 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북향교재단이 설립한 명륜대학을 신설될 전북종합대학에 편입시키고, 전북종합대학후원재단에 향교재산의 5할을 제공하라는 것이었다.<sup>64)</sup>

61) 전북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10쪽.

62) 「제12차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 이사회기록」(1951. 9. 6), 『全北大學校設立關係綴』.

63) 전남대학교는 1951년 10월 6일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52년 1월 1일 광주농과대학, 사립 대성대학, 도립 목포상과대학, 도립 광주의과대학을 묶어서 발족했다. 경북대학교는 1946년 9월에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대구사범대학이 4년제 국립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51년 10월 6일 위 3개 대학을 통합하여 국립경북대학교가 출범했다.

64) 유도회 총본부와 성균관의 이러한 지시는 1949년 6월 21일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농지개혁법에서 향교재산의 확보 및 보호를 위한 유교계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자 성균관은 정부에 향교재산에 대한 政府報償額을 특별히 인상하도록 적극 활동하였고, 그 결과 「文教財團所有農地特別補償法」이 제정됨으로써

11월 19일 문교부는 전북·전남·경북대학교의 개교에 관한 지시를 했다.<sup>65)</sup> 「전북·전남·경북 각 대학교 개교 요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창립 일자를 1951년 10월 10일로 하며, 개교는 각 대학의 실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sup>66)</sup> 마침내 1951년 11월 30일 군산대학관이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으로 개편 이관되고, 다음 날인 12월 1일에는 전주 명륜대학이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으로 개편 이관되었다. 그러나 도립 이리농과대학이 1952년 4월 1일에 농과대학으로 이관되면서 비로소 전북대학교는 당초에 인가된 5개 단과대학을 구성할 수 있었다.<sup>67)</sup> 명륜대학의 문과·법과 학생은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문과와 법과대학 2학년과 3학년으로 편입되고, 경상과 학생은 지망에 따라 군산시 소재 상과대학으로 전입 편입되었으며, 이리농과대학 학생은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으로, 군산대학관 각 학과 재학생은 전형을 거쳐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으로 편입하되, 법과학생도 학생의 지망에 따라 전주시 소재 법과대학으로 편입되었다.

1952년 2월 8일과 9일에 있었던 이사회<sup>68)</sup>에서 전북대학교후원재단 구성에 향교재단의 참여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향교재단 소유 農地報償證券<sup>69)</sup>으로 귀속재산 기업체를 매수하게 되면 해당 기업체에 투자한 총액의 5할에 상당한 기업체의 株券을 전북대후원재단에 제공하기로 하는 의안이 상정되어,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을 전북대학교후원재단에 5할,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에 2할, 향교에

보상액이 3할(개인 소유지는 1.5할)로 인상되었다(「경과보고 기타사항에 관한 건」(1951. 11. 5), 『全北大學校設立關係綴』).

65) 「文高第 號 全北, 全南, 慶北大學校 개교에 관한 건」(1951. 11. 19), 『全北大學校設立關係綴』

66) 전북대학교의 학제는 4년이며, 재산은 현 향교재단의 재산을 國有財産法을 적용하여 국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리공대는 1952년에, 전북대 文理大는 개편하고, 이과는 1952년에 입학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전주 명륜대학 문과 학생은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문과학생으로, 법과 및 경상과 학생은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생으로, 군산대학관 각 학과 재학생은 ‘査格詮衡’을 거쳐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舊 4년제 초급대학 잔존학년 在學도 1951년 말까지는 정리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위와 같음).

67) 전북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6쪽.

68) 「議案 제1호」(1952. 2. 8), 「財團法人 全羅北道鄕校財團理事會 會議錄」(1952. 2. 9) 『全北大學校設立關係綴』

69) 정부는 지주에게 농지 매수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대신 지가증권을 지급했다. 지가증권은 국가에서 사들인 농지가를 5년으로 나누어 그해 공정미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3할을 제공하되 하되 문교부 지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기본재산의 5할 제공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는 國營학교이므로 국비에서 응당 소요경비가 지출될 것이므로 4할 정도를 제공하고, 향교재단의 재산은 모든 면으로 보아 鄉校中心主義로서 經理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체적인 주장은 향교재단이 전북대학교후원재단 구성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조치라는 데 중지가 모아졌다. 결국 ‘이리, 군산의 대학 경비’까지도 향교재단에서 대부분 조달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면서 5할 제공이 가결되었다.

이어 3월 15일 평의원회에서는 전북대학교후원재단에 향교재산을 제공하고, 명륜대학의 명칭을 전북대학으로 개정하며, 국립 전북종합대학교의 법과, 문리과로 개편 이관하고, 농지보상증권에서 생긴 이윤(果實)의 5할을 전북대후원재단에 제공하며, 명륜재단 당시 기성회 활동으로 도민들로부터 기부받은 전답 토지 15만평과 명륜대학의 모든 재산도 전북대학교로 인계하기로 결정되었다.<sup>70)</sup> 그러나 전북대학교 후원재단에 제공해야 할 향교재산이 과실 5할에서 기본재산 5할로 정해지기까지는 향교재단의 이사회의와 평의원회의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했다.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기본재산의 5할’로 할 것이냐, 아니면 향교재산에서 ‘과실의 5할’로 할 것이냐 등등 세부적으로 논의가 거듭되었는데, 1952년 4월 28일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기본재산의 5할로 결정되었다. 국립 전북종합대학교의 설립은 ‘문교 당국의 방침’과 안대로 처리된 것이다.

#### 4.2. 전북대학교의 설립에 대한 지역 유림의 입장

전북의 향교와 유림들은 사립 명륜대학을 국립 전북종합대학교로 ‘發展解消하고’ 명륜대학의 전 재산과 향교재산의 5할을 추가 지원하라는 문교부의 방침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지역 유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향교재단이란 본래 향교의 유지관리와 享祀費에 충당하기 위해 집성된 재산이고, 현재도 재정이 부족하여 享祀費가 부족하여 그때마다 “지방 유지에게 구걸하다시피 行祀하는 것이 다반사인” 상황에서 전북대학교후원재단에 기본재산의 5할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을 제공해야 하는가이며, 둘째, “유도를 중심으로 한 東洋學的 정신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선인의 정신교육의 원천은 儒道”라는 명륜대학

70) 「평의원회 회의록」(1952. 3. 15), 『全北大學校設立關係綴』.

설립 정신이 국립 전북종합대학교에서 구현될 수 있는가였다. 지역유림들은 기본적으로 ‘문교 당국의 방침’과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의 지시에 따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향교재단의 임원진인 이사회와 지역의 향교 대표들로 구성된 평의회회 간에는 다소 견해 차이가 보인다.

1952년 2월 9일 향교재단 이사회에서는 총 15명의 이사 가운데 이사장 柳直養을 비롯하여 崔萬興, 許政烈, 李昇龍, 李東昱, 金昇泰, 宋直相, 朴燦皓 등 8명의 이사와 감사 吳采烝이 참석했다.<sup>71)</sup>

이사장 유직양을 비롯한 다수의 이사회 참석자들은 향교재산을 전북대학교후원재단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이사장 유직양은 해방 직후 전북 유림조직인 명륜회를 조직하여 유도회총본부 중앙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물로, 명륜대학의 설립을 주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는 회의를 주도하며 향교재산의 제공에 적극적이었다. 전북대학교후원재단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전북대학교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전북향교재단은 과거에 명륜대학을 설립 경영하여 온 만큼 전북대학교의 母體라고 볼 수 있으니 향교재단의 전북대학교후원재단 참여를 대국적 차원에서 결의해 달라고 주장했다. “향교재단이란 원래가 향교의 유지와 향사비에 충당기 위하여 집성된 재산인 만큼 향교에 대한 경비는

71) 이날 이사회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의 이력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사료 DB에서 검색해 보면, 그 면면은 ‘전통적인 유림’의 그것과 달랐다. 예컨대, 柳直養은 일제강점기에 전주군 伊東面長(1920, 1925~1927), 一三商會(株)(1923년), 全北麴子(株)(1937~1939)의 이사를 지냈다. 해방 직후 전북 유림조직인 명륜회의 결성을 주도했으며, 전주향교에도 적극 관여했다. 유도회총본부 중앙위원회 위원. 전북본부 위원장, 전북향교재단 이사장(1950~1952)을 지냈으며, 전주 명륜대학의 설립을 주도했다. 한민당 전북위원장을 지냈다. 崔萬興은 1937년부터 해방후에 이르기까지 전주에서 朝鮮紙業(株), 朝鮮紙業(株), 朝鮮紙業(株), 朝鮮紙業(株), 全北麴子(株) 등의 이사, 대표 등을 지냈다. 許政烈은 일제강점기에 진안군 안천면장(1930~1931)을 지냈으며, 1933년 朝鮮昭和5年國勢調査記念章을 수여했다. 李昇龍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1932년까지 전라북도 내무부 지방과와 학무과에서 社會書記를 지냈으며, 1950년 국회 부역자심사위원 전라북도위원으로 활동했다. 李東昱은 일제강점기에 群山府의 屬(1938~1939)을 지냈으며, 해방 후에는 전라북도 문교사회국 書記官(1952), 전북상이군인정양원 서기관(1953)을 지냈다. 金昇泰는 1949년 大韓青年團 전북단장에 임명되었고,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주를 지역구로 출마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국회 부역자심사위원 전라북도위원에 임명되었다. 朴燦皓는 전주에서 全北麴子(株)의 이사 및 대주주(1937~1941)로 활동했으며, 1959년에는 완주군 초촌면에서 助村酒造場을 경영했다. 주임 曹宗祿은 1926년~1935년 전라북도 김제군, 정읍군, 고창군의 産業技手를 지냈다.

이로 因緣하여 감소되어서는 안'되며 "향교재단의 재산은 모든 면으로 보아 鄉校中心主義로서 經理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 조차도 재산을 5할 제공에서 4할 정도의 제공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하는 것에 그쳤다.

이승용, 최만홍, 허정열, 박찬호와 주임 曹宗祿 등도 "전북대학교는 …현재의 國情으로 보아 단순히 국비에만 의존하고서는 도저히 완전한 학교 운영은 기대치 못할 것이므로 강력한 후원재단의 설립은 학교설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향교재단이 원래 명륜대학을 경영하여 왔던 처지로 보나 지방에 국립전북대학교를 유치 설립코자 추진하여 온 徑路로 보나 향교재단이 此際 명실공히 다소의 희생을 무릅쓰고 후원재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으로 재산의 5할 제공이란 실상 부득이한 조치"이다. 또, "향교재단이 모체가 되어 명륜대학이 설립되고, 그것이 또 기반이 되어 전북대학교가 되었으며, 종래의 기부행위 등으로 보아서도 향교재단에서 5할쯤 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믿고, 또 중앙 문교당국의 요청이 그렇고, 전북대학교의 설립이 원만히 성공되느냐 못되느냐의 기로도 이 점에 있으니만큼 원안대로 5할을 제공하고, 그 後事は 적당한 기업을 얻어 상당한 수입만 되면 향교에 대한 경비쯤은 그리 큰 난관은 없을 것", "향교제일주의로 향교재단을 경영하자는 의견은 재단 이사로서는 당연지사이나 지방에도 대관절 國營大學校 하나쯤은 설립하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리고 문교부가 「문교재단농지특별보상법」을 제정한 것도 추가 경비를 교육비에 써달라는 취지이며, 설령 5할을 전북대학교에 제공하더라도 향교는 일반지주의 계산으로 따지면 原財産이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라는 사실도 언급되면서, 이사회회의에서는 문교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향교재단에서 전북대학교후원재단에 과실 5할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이렇듯 이사회가 정부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이었다면, 지역 향교 대표들로 구성된 평의원들의 태도는 다소 달랐다. 1952년 3월 15일 평의원회의가 있었다.<sup>72)</sup> 총원 28명 중 24명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는 이사장 유직양, 상무이사 최만홍, 주임 조종록, 서기 卓殷相 등 향교재단의 임원진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북대학교 후원재단에 향교재단의 재산을 제공하는 건' 등 향교재산에 관한 것이 중심으로 토의되었다. 그리고 호외 의안으로 '유도사상 진흥의 건'이 올라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향교재단의 이사와 감사 등 이사진 전원

72) 「평의원회 회의록」(1952. 3. 15), 『全北大學校設立關係綴』.

에 대한 평의원회의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 핵심 내용은 유교대학인 명륜대학을 전북대학교로 개편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지역 유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향교재산의 제공을 ‘재단의 자의’가 아닌 문교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명륜대학의 설립 정신, 즉 유도진흥 방안의 실현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15명의 이사 가운데 “유교에 관심이 적고 儒道事業에 誠意가 미흡한” 인사를 경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호외의안으로 ‘유도사상 진흥의 건’이 평의원회에서 제기된 점과 비록 논의는 보류되었지만, 이사진에 대한 불신임안이 평의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사실은 명륜대학을 전북대학교로 ‘발전 해소’하는 것에 대해 지역 유림 내부에서 우려와 불만이 상당히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13일 후인 28일 이사회의<sup>73)</sup>에서는 보류되었던 이사진 불신임안과 평의원회의에서 제기된 ‘유도사상 진흥의 건’이 호외의안으로 재논의되었다. 그리고 사실 5월 제공은 문교부의 방침이 국회나 國務院에서도 결정되었으므로, 전북향교재단에서도 “국립 전북대학교를 완전히 설립한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평의원회에서 문교부 요청대로 기본 5할로 가결했다. 유도사상 진흥방안 중 전북대학교 안에 공부자묘를 奉設하자는 제안은 시대가 변해서 오히려 聖尊이 욕되게 될 우려가 있으니 현존 지방향교에 參禮토록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대신 교과과목에 유도진흥의 과목을 많이 넣도록 해서 유도정신을 영구 존속시키도록 하자는 쪽으로 논의는 마무리되었다. 한편, 향교재단 임원진에 대한 평의원회의의 불신임안은 기부행위상 평의원이 이사를 불신임할 수도 없고 이사 또한 평의원을 불신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평의원회의의 결의는 월권이라고 정리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up>74)</sup>

73) 「이사회 회의록」(1952. 3. 28), 『全北大學校設立關係綴』.

74) 당시 이사진의 입장은 “불신임안 제출은 유도정신에 배치되고 그 사상을 沒却하는 儒道自滅之道를 걷는 것이 아닌가 믿는다. ... 향교재단의 재산을 割讓하여 전북대학 후원재단을 설립한다는 데 대한 거부적 태도라고 믿는데, 이는 실로 언어도단이다. 국가정책으로서 國會를 통과하고 國務院의 決議를 거쳐 대통령 裁可까지 얻어 설립되는 전북대학교의 설립에 대한 거부적 태도, 방해 공작은 실로 痛嘆之事로 대한민국이 크나 유림이 크나, 또는 향교가 크나를 판단치 못하는 妄動이다. 이러한 지방 유림의 태도로는 대한민국은 원만한 행정을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립과 相爭을 버리고 서로 손을 잡고 합심협력하여 굳게 단결하여 나가야만 되는 것이니 今般 불신임안도 정치적으로 손을 잡고 善圖進行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하면 원만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

4월 15일 전북대학교 본부 사무실에서는 회의가 있었다.<sup>75)</sup> 28명의 평의원 중 24명의 평의원이 참석했고, 이사장 유직양 등 8명의 참여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의원회의 불신임안에 따라 사임했던 이사진의 ‘役員 사임에 관한 對策 講究의 건’이 결의되어 전형위원의 선임 방식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 이사에는 전 이사장 유직양, 허정렬, 柳浩錫, 柳根浩, 吳一昇, 吳采烈, 崔昇烈, 郭漢永, 金昇泰, 朴燦皓, 李愚軾, 黃瑋奎, 尹在旭, 郭鐸이, 감사에는 이종택, 인창섭, 최만홍, 송직상 등으로, 임원 구성에서 기존 이사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sup>76)</sup> 새로 선임된 임원진은 3월 15일 평의원회의에서 결의한 전북대학교후원재단에 대한 향교재단의 기본재산 기부의 건을 문교부의 지시사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5할로 할 것을 翻案 동의함에 따라 향교재단은 다음 조건하에 소유 지가증권의 5할에 해당하는 문교재단 특별보상 지가증권 전액을 전북대학교 후원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 一, 단기 4285년(1952년) 4월 말일까지 본 재단 소유 지가증권으로서 부속재산 기업체를 매수하거나 일정한 기업체에 투자할 때에는 증권의 5할을 전북대학교 후원재단에 기부할 것
- 二, 단기 4285년 5월 1일 이후 본 재단이 지가증권으로써 귀속재산기업체를 매수하거나 일정한 기업체에 투자할 때에는 전북대학교후원재단은 본 재단으로부터 기부받은 지가증권으로써 본 재단과 공동하여 기업체를 매수하거나 또는 이에 투자할 것
- 三, 전북대학교후원재단 임원 중 이사 3명 및 감사 1명은 본 재단에서 추천하는 자를 참가케 하여 항시 본 재단과 긴밀한 유기적 연락을 保持하도록 할 것
- 四, 전북대학교에서는 장래 유도의 진흥과 儒學의 연구에 적극 협력할 것

전북향교재단에서는 4월 16일 전북대학교후원재단 설립위원장 앞으로 지가증권과 기부조건을 첨부한 기부증서를 발부했고, 4월 28일 전북대학교후원재단에서는 전북향교재단 이사장 앞으로 수령증[受入證]을 전달함으로써 일단의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전북대학교에서는 장래 유도의 진흥과 儒

다”라는 이사 李東旻의 다음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75) 『회의록』(1952. 4. 15), 『全北大學校設立關係綴』.

76) 새롭게 구성된 14명의 이사진 가운데 새롭게 선임된 이는 최승렬, 이우식, 황봉규뿐이었다.

학의 연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지역 유림들의 바람이 이후 잘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1년여가 지난 1953년 3월 28일과 29일 전주시 전동에 위치한 大成出版社에서 열린 이사회회의와 평의원회의에서는<sup>77)</sup> 전북종합대학교의 教授科目에서 향교재산 기부 조건이었던 유도진흥과 유학 연구를 위해 설치하기로 약속한 유교 과목 강좌가 설치되지 않고 등한시되는 냉정한 현실을 지적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논의되었다.

##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향교재산을 기반으로 한 유교대학의 설립 운동이 타지역과 구별되는 호남지역만의 특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미군정기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 과정, 전라북도에서 향교재산을 재원으로 한 지방 유교대학의 설립과정, 유교대학이 국립종합대학교 설립의 모체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방 국립대학교의 초기 역사를 밝혀보고자 했다.

미군정기인 1948년 5월 17일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이 공포된다. 이 법령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향교재산을 관리 운영케 한다는 점과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운영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일제강점기의 「향교재산관리규칙」과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이 법령으로 유도회총본부와 성균관에게는 지역 향교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생겼으며, 외형적으로는 향교재산의 관리 주체가 관의 통제를 벗어나 향교재단으로 옮겨졌지만, 향교재산이 국가의 통제하에 놓였다는 점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 결과, 이 법령은 향교재산이 지역의 국립대학교 설립에 활용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1948년 6월에 설립된 전라북도 향교재단은 그해 8월 향교재산을 토대로 “儒道를 중심으로 한” 전문학교 수준의 명륜대학원을 전주에 설립했으며, 1950년 4월에는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명륜대학(초급)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유도를 중심으로 한 동양학적 정신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유학을 1주에 2시간씩 강의과목으로 채택했다.

해방 후 정부는 지역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과 고등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77) 『이사회 회의록』(1953. 3. 28), 『全北大學校設立關係綴』; 『평의회 회의록』(1953. 3. 29), 『全北大學校設立關係綴』.

시정하기 위해 1道1校의 국립종합대학 설립을 결정하고, 지역 내 산재한 단과 대학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교육 재원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조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향교재산을 국립대학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려 했으며, 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따르도록 각 지역의 향교재단에 요구했다.

전라북도에서는 향교재단에서 설립한 명륜대학과 전북향교재단의 향교재산에 주목하고 명륜대학을 모체로 한 국립종합대학교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전북향교재단은 명륜대학을 국립 전북종합대학에 편입시키고, 전북향교재단이 소유한 향교재산의 5할을 전북종합대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1951년 10월 국립 전북종합대학교 설립을 보게 되었다. 11월 30일 군산대학관이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으로 개편 이관되고, 12월 1일 명륜대학이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으로 개편 이관되었으며, 이듬해인 1952년 4월 1일 도립 이리농과대학이 농과대학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향교재산이 지방 국립대학교 설립 및 국가교육시스템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지역유림들은 지역 대학설립을 통해 儒道에 입각한 지식인 양성을 꾀했으나 명륜대학을 신설된 전북종합대학교에 이관하고, 교육재원으로 명륜대학의 전 재산 제공 및 향교재산의 추가 제공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조건으로 제시한 “전북대학교에서는 장래 유도의 진흥과 儒學의 연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조건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해방 후 국립대학교 설립과정을 향교재산과 연결하여 고찰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관점이지만, 그 전개가 시론에 그친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백으로 되어 있는 해방 후 고등교육체계의 성립과정을 향교재산과 관련하여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해방 전후 전국의 향교재산 규모에 대한 통계적 분석, 일제강점기 말 향교에 관여했던 사람들과 해방 이후 향교 운영 주체와의 관계, 해방 이후 전국 향교의 운영 주체와 인물 분석, 향교재산 운영 과정에서 촉발되는 유림 내의 갈등 양상 등등.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 1. 자료

『1948, 1951, 鄉校財團法人業務推進概要綴(鄉校財團設立·明倫大學設立·全北大學設立)』  
국사편찬위원회, 『資料大韓民國史』 5.

『朝鮮總督府官報』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編, 『(國譯)心山遺稿』, 國譯心山遺稿刊行委員會, 1979.

《중앙신문》, 《自由新聞》, 《동아일보》, 《조선일보》, 《世界日報》, 《경향신문》, 《現代日報》,  
《호남신문》, 《남조선민보》, 《大丘時報》, 《工業新聞》, 《江原日報》.

『財團法人 全羅北道鄉校財團寄附行爲』, 『(乾山大學設立關聯) 文書』.

### 2. 논저

우마코시 도오루 저, 한용진 역,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 대학 모델의 전파연구』,  
교육과학사, 2001.

이황직, 『군자들의 행진』, 아카넷, 2017.

成均館儒道會, 『成均館儒道會七十年史』 上, 2018.

전북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 『전북대학교 50년사』 상, 1997.

김인규, 「해방후 유림의 분열과 사단법인 유도회」, 『동양문화연구』 28.

김상훈, 「미군정기 교육정책 수립과 한국인의 역할」, 『역사연구』 28, 2015.

김정인, 「일제 강점기 鄉校의 변동 추이 - 향교 재산 관련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47, 2006.

柳東熙, 「美軍政期の 大學 設立過程 研究」, 『嶺東文化』 8, 2001.

류미나, 「식민지기 조선의 명륜학원: 조선총독부의 유교지식인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교육사학연구』 17(1), 2007.

이상식, 「전남대 설립에 공헌한 광주 전남향교」, 『향토문화』 35, 2016.

□ Abstract

Management of Confucian Prop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National University after Liberation of Korea  
: Focusing 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ang, Soon-So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movement to establish Confucian colleges based on Confucian property developed in the Honam region,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the Confucian Property Management Act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and its connection to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proclamation of this act on May 17, 1948, Confucian property was incorporated into Confucian foundations in each province but remained effectively under state control. In June 1948, the Jeollabuk-do Confucian Foundation was established, and by August of the same year, Myeongnyun College was founded using Confucian property. In April 1950, the Ministry of Education officially recognized it as a junior college, incorporating Confucian Studies into its curriculum.

Since 1946, the government had pursued a policy of establishing a national university in each province to address regional disparities in higher education. This policy involved integrating existing local colleges while requiring them to secure their own funding. As part of this initiative, the government sought to utilize Confucian property for national university operations. The Sungkyunkwan and the central headquarters of the Confucian Association also cooperated in urging regional Confucian foundations to comply with the government's directive. Consequently, the Jeollabuk-do Confucian Foundation, decided to merge Myeongnyun College into the newly established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donated 50% of its Confucian property.

As a resul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as founded in October 1951, demonstrating the significant role of Confucian property in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Key Words]**

Confucian Property, Nation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llabuk-do Confucian Foundation, Confucian College, Sungkyunkwan

**장 순 순**

---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2호  
E-mail : hyongae@naver.com

접수 일자 : 2025. 02. 11.

심사 수정 : 2025. 03. 07.

게재 결정 : 2025. 03. 12.

---